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DAIL COMMUNITY
다일공동체

2015. 07 + 08
Vol. 179

unity

PRAY
FOR
NEPAL





희망은 무너지질 않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7월, 사랑하는 다일의 후원회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라는 시를 보면 희망을 아름답게 품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하...

희망을 상징하는 푸른 하늘이 포도알에 박혀 있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습니다. 7월을 통하여 우리는 희망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과 5월 6월은 네팔의 지진으로 상처 받은 형제, 자매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러 긴급구호 1진에서 5진까지 그 땅으로 달려가 무상급식, 의료지원, 방역, 임시주거지건축, 화장실건설 등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일 긴급구호 6진, 7진, 8진은 네팔의 그 땅이 회복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네팔의 이웃들과 함께 울고 그들이 웃을 때 함께 웃기 위하여 일할 것입니다.

지난 6월은 메르스로 인하여 대한민국 전 국민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기간에 밥퍼도 많은 기업과 단체 봉사팀이 봉사활동을 연기하거나 자원봉사를 취소하여 소수의 개인 봉사자들로 밥을 짓고 나누던 날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힘을 주신 다일의 후원회원님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일공동체와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후원회원 여러분!

네팔이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메르스로 인해 마음이 무너졌다 하지만 희망은 무너지질 않습니다.

다일은 여전히 아파하는 이웃들의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웃과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다일의 희망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7월의 청포도 같은 더 많은 희망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5년 7월에

작은 형제, **취** 믿든 불림

CONTENTS

02

네팔지진 네팔현장소식

06

네팔지진 네팔재건계획

10

캄보디아 비전트립감상문

12

영성수련감상문

15

마음을 위로해 주는 시

16

해외분원소식

24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26

신규후원감사

28

후원계좌 및 분원연락처

30

카카오톡 후원방법안내

c.o.v.e.r.s.t.o.r.y

힘내요! 네팔

잔해더미에서 쓸만한 집기들과 자재들을 골라내는 손길이 바쁩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기에 다시 한번 일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이들이 안타깝습니다. 다일공동체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거주지를 세우며 희망을 찾아가는 네팔의 주민들과 아이들은 비로소 미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신두팔촌 빈타르 지역의 지진 피해현장

13

일의

네팔 긴급구호

이지현

네팔긴급구호팀, 밥퍼나눔 운동본부 부분부장

여진의 두려움보다

큰 고난당한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4월 25일 토요일. 네팔에 강진이 왔고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소식에 카트만두 마누하르 지역의 밥퍼는 어떡하지 우리 스텝들은 괜찮은지 하는 마음에 급히 달려갔다. 급하게 긴급구호 1진을 꾸려 떠나며 생사의 위협 속에 있는 네팔 다일 스텝들과 네팔 사람들의 안전을 간구하고, 또 간구했다. 2년 전 비전트립으로 갔던 카트만두 공항은 그때와는 사뭇 다른 무거운 기운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무겁다'라는 느낌을 넘어 두려움과 슬픔에 압도된 분위기를 아프게 느껴야 했다. 공항

을 빠져나와 센터로 향하는 길에 만나는 광경에서 지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들었다. 공항 주변 공터는 이재민들의 텐트촌이 되어버렸고 주유소와 도로는 기름을 사려는 행렬과 피난을 떠나는 행렬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네팔에서의 첫 날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갈 곳은 신두팔촉 지역이다!

피해가 가장 심각한 신두팔촉 지역으로 피해 조사팀이 떠난 후 카트만두 시내 곳곳의 피해상황을 샅샅이 폭삭 주저앉은 학교 건물들과 크고 작은 문화유산들, 반파된 왕궁과 주택들을 보며 그 처참함에 마음이 너무도 아팠다. 그나마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토요일이었음에 작은 위안을 삼았다.

저녁이 되어 신두팔촉 조사팀이 가지고 온 현장 소식과 사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188가구가 있던 빔타르 지역은 단 한 채의 건물도 남김없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사람이 살았던 모습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모습에서 그들이 살았던 마을 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현장 사진들을 보며 상황을 듣고 다일공동체 긴급구호팀은 “우리가 갈 곳은 이곳이다!”라며 서로 눈빛으로 다짐을 나누었다.

서둘러 밥을 푸고, 의료캠프를 세우고...

다음 날 주민들에게 나눌 밥퍼를 위해 밥솥과 물, 쌀 등을 트럭에 한 가득 싣고 가서 신두팔촉 빔타르 지역에 긴급구호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구호활동을 시작했다. 주민들을 위한 밥퍼를 하며 한끼의 식사에 감사



네팔 다일의료 센터에서 진료중인 아주대학교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현 박사

하는 네팔사람들을 볼 때 “그래, 이것이 다일이제!” “이것이 다일의 초심이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어려운 이들과 함께 밥을 나누는 것, 그것이 27년전 청량리에서 시작했던 밥퍼의 초심인 것이다. 몇 일 후 급파된 긴급구호 2, 3진과 더불어 상가촉 지역에 의료캠프를 세우고 진료를 시작하며 무상급식과 더불어 본격적인 구호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땀별 더위아래에서 땀을 비 오듯 흘리며 환자를 정성으로 돌보는 의료진의 모습은 감동을 넘어 너무도 경이로운 모습이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상자들의 행렬을 보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약속한 약품후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머노스야, 힘내렴!

밥퍼를 하는 동안 아침 밥을 먹기 위해 많은 아이들이 모였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 중 40% 이상이 아동이라는 집계에서 볼 수 있듯이 네팔의 아동 인구 비율은 상당히 높다. 아침밥을 위해 모이는 아이들이 유난히 많았던 이유이다. 12살인 머노스는 그 아이들 중 한 명인데 밥퍼에서 본 머노스는 여느 아이들처럼 밝고 천진난만하기만 했다. 하지만 머노스의 이야기를 듣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안타



네팔 다일의료센터에서 진료중인 시화병원 응급의학과 최영미 과장

까운 사연이 있다. 머노스의 가족은 다른 때처럼 밭을 일구고 있었고 점심이 되어 부모님이 점심을 위해 잠시 집안에 들어간 사이에 지진이 발생해 그대로 매몰되어 숨지고 말았다고 한다.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아픈데 이런 부모님의 죽음을 무너진 집터 위에서 무덤덤하게 설명하는 아이를 보았을 때 일행 모두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연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이 빽타르 지역에만도 여럿이라는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에 돌아서서 말없이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다.

대한방역협회가 후원하는 방역기의 위력

‘부양~’ 방역기의 요란한 소리가 들리자 동네 아이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 이내 뽀얀 연기를 내뿜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방역기를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이 우리네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정경기만 하다.

긴급구호 3진이 들어오며 대한방역협회에서 후원한 방역기를 들여와 신두팔족 지역에서 방역을 하는 첫 구호팀이 되었다. 건물더미에 깔린 사체들의 부패로 인한 질병과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전공공하던 주민들이 방역하는 우리 일행을 보고 기뻐하며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요청하는 통에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다. 이 뿐 아니라 이 곳이 아닌 더 깊은 곳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우리보다 어려운 이들이 있으니 그들도 도와달라는 부탁에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씩씩이가 좋을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나보다 다른 이들을 더 챙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네팔 사람들의 진심어린 마음이 잘 전달이 되고 공감이 되었다.

집집마다 30kg의 쌀을 나누기 위해

수도인 카트만두나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네팔의 주택 대부분은 산간에 수십여 가구씩 모여 형성된 산간마을이다. 쌀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풀빈다라라는 마을 역시 이런 산간 마을 중 하나인데 이미 여러 마을에 쌀을 나누어 준 경험이 있기에 어렵지 않게 여기고 갔지만 이 곳은 절벽 길을 작은 트럭으로 오르지 못하고 마을 초입에서부터 내려 30kg의 쌀을 등과 허리에 지고

걸어서 올라야만 했다. 우리 일행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까지 나서서 함께 쌀을 지고 나르는 모습이 마치 일개미들이 식량을 지고 가는 모습과도 같아 이런 모습을 본 모두가 한바탕 웃음으로 힘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었다. 각 가구당 30kg 쌀을 받은 주민들은 기쁨과 감동의 환호성을 지르며 다일공동체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땀을 흘리며 느끼는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다.

다시 한국으로

밥 한그릇, 쌀 한포대를 나누며 주고 받았던 ‘닷네뱃(감사합니다)’이라는 말을 되새겨본다. 이들을 돕기위해 왔지만 이들의 모습에서 더 큰 깨달음과 행복을 받고 가는 우리가 더 고마워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가 들었던 ‘닷네뱃’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들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일으켜 세우고 아파하는 마음의 회복을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DAIL

PRAY FOR NEPAL



대한방역협회가 후원한 방역기로 가정마다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다일긴급구호팀

다일공동체 구호 활동 현황

1주차

4월 25일(월) 규모 7.8 지진 발생

4월 27일(월) 네팔 지진 긴급구호팀 1진 파견

- 긴급의약품, 보온담요, 식수 정수제 등 구호 물품 전달
- 배식 활동 위한 식재료, 생수, 가스 확보
- 긴급 의료 지원을 위한 현지 선교사 및 교민 사회와 협력 체제 구축
-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거처 설치

2주차

신두팔촉 빔타르, 산가촉 VDC(188가구, 1,500명) 구호활동 실시

- 신두팔촉에 다일구호본부 설치, 구호활동 돌입
- 5월 1일(금), 긴급구호팀 2진(의료진 포함) 합류, 진료 및 의약품 제공
- 산가촉 8, 9 빔타르 마을 기초 식량 배분(188가구, 각 가구당 쌀30kg, 달, 밧, 딸꺼리)

3주차

최일도 목사를 포함한 긴급구호팀 3진 파견

- 긴급 의료 및 의약품, 기초 식량 보급
- 산가촉 사띠모레 마을 53가구에 각 30kg의 쌀 전달
- 5월 5일(화)부터 대한방역협회 후원으로 산가촉 일대 방역 활동 시작
* 대한방역협회 방역기, 약품(500만원 규모) 후원
- 카트만두 한인교회 전 지역 방역활동 실시

4주차

300여 가구에 쌀, 텐트 지급

- 현지 시각 5월 12일(화), 12시 50분경, 강도 7.3 규모의 2차 지진 발생
- 2차 지진 피해 상황 조사 및 네팔 주민과 구호팀 안전 확인
- 사띠모레 마을에 방역 실시, 텐트, 비상식량 120세트 전달
- 다일 현지인 스태프의 고향인 고르카에 방문하여 스태프 가족 위로 및 구호품 전달
- 라릿푸르 지역의 타이버 마을과 허리시디 지역 일대 학교, 주택 방역 실시
- 풀빈다라 마을 53가구에 비상식량 120세트 지급
- 6월2일(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후원으로 긴급의료 진료 실시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의약품 850만원 후원

힘내요! 네팔

모처럼 터져나온 맑은 물을
마시고 흙먼지를 씻으며
기뻐하는 아이들을 바라만 보아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무너져 내린 집, 돌더미 속에서 쓸만한 집기들과
자재들을 골라내는 손길이 바쁩니다.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만은 없기에 다시 한번 일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이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들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다일공동체는 네팔지진 피해 복구를 위하여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재건 계획으로
네팔의 무너진 희망을 세워주고자 합니다.

잔해더미에서 사용할만한 집기를 찾고 있는 아이



3대 재건계획

1. 마을 및 학교재건

2. 식수 및 위생개선

3. 아동보호 및 결연

01



마을 및 학교재건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산지마을의 경우 약 90% 이상의 집과 기반시설이 파괴되어 기본적인 생활도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지진의 최대 피해지역인 신두팔촉은 100%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피해 정도가 심각합니다. 다일공동체는 스스로 재건할 여력도 없는 이들의 삶을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마을 복구를 위해 피해마을 1곳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원할 기업이나 기관, 교회 등 이 분야에 도움을 주실 개인이나 단체를 찾고 있습니다.

지원분야

임시처소 구축, 복구 기자재지원, 주택/학교/교회 재건축

02



식수 및 위생개선

식수시설과 위생시설(화장실)이 대부분 파괴된 실정이라서 식수는 주변 계곡이나 지하수를 이용하고 용변은 거주지 주변에서 뒷처리 없이 방치하다 보니 우기와 맞물려 환경오염으로 인한 전염병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지원분야

임시화장실 지급, 마을 공동화장실 건축, 수도시설 개량 및 재건축



03



재건에 협력할
단체, 교회, 개인을
찾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및 결연

네팔의 인구 중 14세 미만의 아동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은 34.6%입니다.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은데 지진으로 부모가 사고를 당한 사례가 많아 조금 있던 교육의 기회마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양 부모가 모두 희생된 아이들이 한 지역에도 60여명이나 되어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보호시설이 시급합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원분야

1:1아동결연(교육 및 급식), 어린이 보호시설 건립

약 3개월간의 우기가 시작된 네팔은 지진보다 더 큰 위험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진 발생 후 2개월여가 지나 많은 이들의 기억에서 네팔의 비극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네팔의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름 우기가 지나면 곧바로 겨울이 닥쳐오기에 신속한 복구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다일공동체의 사역은 여러분이 함께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네팔을 위한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팔 재건 후원하기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231564

외환은행 131-22-00800-7

예금주 다일복지재단

문의 02-2212-8004

“아이들이 큰 꿈을 갖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Stony brook School

이성원



작년 여름에 이어 올해 여름에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대략 1주일 정도를 다녀왔는데 올 해 다녀온 봉사활동은 더욱 뜻 깊게 느껴졌다. 작년 여름에는 참가 인원이 많아서 단체로 움직이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유동적인 이동에 한계가 많아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았는데 올해는 적은 인원이 참가하여 좀더 다양한 봉사를 할 수 있었다.

밥퍼와 빵퍼 봉사를 하는데 작년보다 더 많은 캄보디아 현지인분들께서 도와주셔서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느낌이 좋았다. 현지인 스텝뿐 아니라, 어여쁜 중학생 여자 친구들도 함께 밥을 나눠주었는데 모든 스텝들과 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하니 더욱 뜻 깊었다.

설거지할 때 현지인 초등학교 남자 아이가 옆에서 식판을 옮겨주거나 어른들이 의자를 정리하는 등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의미있게 느껴졌다. 밥퍼를 할 때 아이들이 와서 밥과 찬이 담긴 식판을 받아가는데 아이들이 밥은 먹지 않고 봉지에 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인데 밥퍼에서 제공되는 이 한끼조차 여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집에 가서 온 가족이 나눠 먹는 유일한 한끼라는 게 마음이 아팠다. 우리가 조금만 더 절약하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 줄 수 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영어수업을 진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함께 간 알렉스

와 바네사, 그리고 선교사분들의 도움으로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반겨주며 잘 따라주는 아이들을 보며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에 의욕이 넘쳤다. 더 많은 아이들이 영어를 배워서 큰 꿈을 갖게 해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우리가 후원하는 아이들의 집을 직접 방문했을 때였다. 캄보디아에 같이 갔던 인표와 유진이는 다일공동체 아동결연으로 3년째 후원을 하고 있고, 나와 내 동생은 2년째, 종현이는 이번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후원을 시작했다. 인표가 후원하는 아이 '로운 티아라'는 자신의 후원자인 인표를 굉장히 반겨주었다. 인표는 썩스러워 했지만 행복한 미소는 숨길 수 없었다. 인표는 작년에 티아라의 선물로 크레파스와 미술 도구들을 보냈었는데, 이번에 만나 꿈을 물어 봤을 때 자신의 꿈이 디자이너라고 했으며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다. 내가 후원하고 있는 뿌르뜨라도 만나러 갔는데 남동생들이 많아서 선물로 사온 축구공이 결국 막내 동생에게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기뻐하는 모습에 마음이 몽클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중에 가장 자

랑스러운 일이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직접 손 편지를 써주었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하는 만큼 아이들도 그대로 그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라는 걸 느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통해 자신이 가진 사랑을 직접 전달하고, 큰 기쁨을 느끼며 함께 나누는 사랑을 서로 배워갔으면 좋겠다.

dail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도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아버지의 뒷모습**에
가슴을 붙잡고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163기 고종무(갈렙)님

저는 신앙이 없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다일영성수련을 받은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일영성수련 소감문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저는 신앙이 없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 세상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심한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을 무렵, 가족들과 밥을 먹다가 “형이 요즘 많이 우울해 하는 것 같은데, 설곡산에 가서 바람 좀 쐬고 다시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무심한 듯 꺼낸 동생의 말에 저도 모르게 귀가 솔깃해졌고, 설곡산을 찾아갔습니다.

설곡산에서 자리잡은 다일영성수련원에서 영성수련을 받으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홀로 있던 시간이 많았지만, 정작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얼마나 외면하며 살았었는지 철저하게 마주하며 매일 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침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도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을 마주하는 순간 무너지는 가슴을 붙잡고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제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 모든 질문들 가운데,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이끌어가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오만함으로 가득차 있던 제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광대한 자연 앞에 티끌보다 작은 저의 존재를 보여주셨고,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았던 저의 죄를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여, 죄송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주세요.”라는 고백이 입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이 눈물은 또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회한도 아니었고, 제 자신에 대한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더 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비로소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지난 날에 대한 회개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인생 동안 흘려온 것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린 닳새의 다일공동체 영성수련 기간동안 저는 용기를 내어 설곡산 다일공동체에서 좀 더 지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 세 번의 규칙적인 예배와 공동식사를 통해 낮에 자고 밤에만 활동했던 저의 신체리듬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육체노동을 하면서 몸도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작은 선물에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도 마



음의 청진기를 댈 수 있는 여유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어떨 땐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던 형제를 바라보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내치진 않을까 하며 정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 요한일서 1장 9절”라는 말씀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준 어머니 황덕순(장미)님과 동생 고종구(디모데)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이라도 다일영성수련을 받는 중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한 아름다운 설곡산에서 다일영성수련회를 인도하신 최일도 목사님과 사모님, 공동체 가족들, 그리고 영성수련을 돕는 모든 도우미님들

에게도 진심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 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빛진 자로써 은혜를 갚으며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소망이 하나 있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죽는 날 까지 살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일영성수련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하!

DAI

영혼을 위로해주는 시

시 제공 : 최별 (Byeol Ellie Choi)

지은이 : 마더 테레사

>>> 나를 구하소서

나를 구하소서, 주님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명예로워지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편애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신뢰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인기를 누리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나를 구하소서, 주님

굴욕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멸시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중상모략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잊혀지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오해받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조롱당하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배신당하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의심받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현장 이야기

탄자니아 TANZANIA

변창재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원장



호프클래스가 해피클래스로!

2015년 3월, 35명의 쿤두치 천사들로 시작한 Hope Class 2기의 한 학기가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 석달 동안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더운 아프리카의 날씨에 날마다 땀으로 범벅 되며 서로에게 적응하고 공부하느라고 참 많이 애썼습니다.

8시에 수업을 시작하지만 6시 30분이 되면 센터의 문을 두드리고 선생님이 출근하는 길을 바라보며 뛰어가 먼저 선생님의 손을 잡으려고 기다리는 아이들... 아이들 한 명씩 눈 높이로 지도하며 인내로 기다려 주시는 선생님이 참 좋고, 날마다 다른 메뉴의 맛있고 영양 많은 간식과 점심을 기다리는 행복한 아이들... 매일 야단 맞지만 그것이 사랑의 훈육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속상하고 몸이 아플 때라도 학교에 빠지지 않고 중간에 절대로 집에 가지 않는 아이들...

성경 말씀도 잘 듣고 아침마다 성경 말씀도 잘 외우는 기특한 아이들...

들판에 멋대로 핀 야생화 같은 아이들이지만 야생화가 그대로의 멋이 있듯이 아이들도 있는 그대로 참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You are so special! 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오늘도 아이들 모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

며 함께 하는 탄다일 가족들이 있어 호프 클래스는 해피 클래스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학기를 마치며 가족들을 모시고 간단한 학부모 모임과 아이들 장기자랑으로 잔치가 벌어진 날, 아이들과 가족들 모두 Happy Class 입니다.^^

귀임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 4월에 탄자니아 땅을 밟았는데 만 3년이 지난 오늘, 임기 기간이 만료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 다일복지재단 해외사업국에서 사명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을 되돌아 보니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은총이었고 그 어느 것 하나 사랑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 드립니다. 저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무익한 종일 뿐임을 고백 드립니다. 바통을 이어 받아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를 이끌어 갈 박종원 원장님께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어 주시고 중보기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ajl**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255-786-740-003

미주 U.S.A

박종원 미주 다일공동체 원장



네팔을 향한 북미주 교민들의 한결같은 마음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네팔을 위한 최일도 이사장님과 김연수 상임이사님의 3주간의 북미주 순회집회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거의 2년 6개월만에 애틀란타를 찾은 최일도 목사님은 1세대 미주다일공동체 이사님들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차세대 미주다일공동체를 이끌어갈 2세대 모임을 만들었고, 오랜만에 베트남들과 만나 네팔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처럼 만났지만 늘 성령님 안에서 교제했던 분들이라 한마음으로 네팔을 위해, 다일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따뜻한 정성을 모았습니다. 또한, 제7기 미주다일공동체 이사회를 구성하여 미주다일 사역의 재도약을 위해 파이팅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은 캐나다에서는 토론토와 그 근교 런던장로교회와 키치노워털루교회에서 집회를 통해 네팔의 사역을 소개하셨고, 캐나다다일공동체 원장 이형식 목사님과 지역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캐나다 다일공동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 순회집회에서는 뉴욕다일후원회장 송병기 목사님이 섬기시는 목양장로교회를 시작으로 하크네시아교회(전광성 목사님), 뉴저지장로교회(김도완 목사님), 은혜와사랑교회(소기범 목사님)가 네팔 신두팔촉의 무너진 5교회(호산나교회, 조띠니바스교회, 너빈교회, 꼬다리교회, 마라나타교회)

의 수축을 위해 특별헌금을 해주셨고, 뉴욕 벗님과 뉴저지장로교회의 집사님과 장로님이 신두팔촉의 교회를 위해 귀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밤낮없는 바쁜 일정으로 진행된 북미주 순회집회로 많이 지치신 최일도 목사님은 오히려 이번 북미주 순회집회에 귀하게 쓰임받아 감사하다며 강사비 일체를 네팔을 위해 헌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29일 네팔의 지진피해현장을 다시 찾기 위해 한국에 가서 준비해야 한다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네팔을 위해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신 애틀란타, 뉴욕, 뉴저지의 벗님들과 한인교회의 목사님들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온몸으로 증거해 주신 최일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북미주에 계신 교회들과 교민들께서 계속해서 네팔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정성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네팔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후원해 주신 박로저, 진신범, 뉴저지 예인교회, KabSooKang, 우재희(순종님), 최일도, 한무리교회, 서병인, Eunice Kim, 박문희, 좋은이웃교회, 정진영+최진주, 김종규, Ender's Pest Control, Inc, 김종+임인혜, 정기락(큰바위님), 김홍일, 하크네시아교회, 목양장로교회, 한자순, 뉴저지 장로교회(김도완목사)외에 모든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AIL**

미주 다일공동체

+1-770-813-0899



필리핀 PHILIPPINES

한성희 필리핀 다일공동체 원장



아이들이 열광하는 무비데이

어렸을 적 교회나 마을회관에서 보았던 영화의 제목은 잘 생각나지 않지만 그 때의 느낌은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필리핀 까비떼 작은 마을인 바랑가이 말리아는 어릴 적 영화관이 없어 마을에 텔레비전 한 대를 놓고 주민들이 웅기종기 모여 시청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곳입니다. 센터에서 20분만 나가도 큰 영화관이 있음에도 갈 수 없는 아이들. ‘영화 한 편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생길 만큼 영화는 우리 생활 깊은 곳에 이미 자리하고 있어 문화생활의 기분이 되었습니다. 필리핀 다일공동체 센터를 찾은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영화주제가를 여러 아이들이 부르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보고 부르는 거니?” 묻는데 아이들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영화를 본 적은 한번도 없어요, 그저 다른 아이들이 영화를 보고 흥얼거리는 걸 듣고 따라 부르는 것뿐이에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심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은 ‘무비데이’를 정하여 아이들이 보고 싶은 영화를 보여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무비데이를 시작한지 3회째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1, 2회 때는 겨울왕국과 토이스토리를 상영했고, 이번 달에는 쿵푸 팬더를 아이들과 함께 봤습니다.

영화관 기분을 내기 위해 영화 홍보 포스터를 센터 벽면에 붙여 놓았는데 영화가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가져가도 되냐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사용하지 너무나 오래된 할아버지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보고 있는데 센터의 창문을 모두 닫고 검은 종이나 천으로 가리고 보아야 겨우 형체를 볼 수 있습니다. 겨울왕국의 열사 얼음공전이 온통 파란색으로 보여도 영화를 본다는 자체만으로 좋아하는 아이들과는 달리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는 간사님들과 저는 미안한 마음에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1년 내내 여름인 필리핀 날씨에 얼굴에서 줄줄 흐르는 땀을 닦으며 영화에 몰입하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 같아선 에어컨이 달린 영화상영관을 만들어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선생님들은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은 땀을 흘리며 땀으로 목욕을 해도 좋기만한 무비데이. 비록 작은 영화 1편을 보는 것이지만 이 작은 실천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줄 꿈과 희망이 작지 않음을 봅니다.

새 프로젝트와 에어컨, 암막커튼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창문을 열고도 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갖는 목표를 세우고 필리핀 다일공동체는 모금을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마냥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준비하고 실천할 때 준비된 돕는 손길이 다가와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마음을 모으는 훈련과 누군가를 돕는 것, 필요를 따라 힘을 모아 목표를 이루어 가는 것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DaIL**

필리핀 다일공동체

+63-927-560-7346



캄보디아 CAMBODIA

김학용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



캄보디아의 다음세대를 위한 '꿈피'

캄보디아 빈민촌에서 성장하여 밥퍼에서 밥을 먹고 자란 청소년들 중에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믿음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로 양육하기 위한 '꿈피'가 완공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청소년들이 입주하여 나사렛 예수의 영성 생활, 나눔과 섬김의 봉사 생활, 일하며 기도하는 공동생활을 통해 섬김의 리더로 자라날 것입니다. '꿈피'는 성남시와 데오스학교의 후원으로 건축되었습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DREAM FOR_청소년 캠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DREAM FOR'라는 주제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놀이를 하고 예배도 드리며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자 꿈꾸는 미래의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듣고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현실로 실현되어 이웃을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방과후 교실이 달라졌어요!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는 공부하고 싶지만 공부하기 어려운 마을의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여 영어, 태권도, 탁구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환경미화를 통해 새롭게 교실을 단장하였으며 최근에는 특별히 미국 THE STONY BROOK SCHOOL(SBS) 학생들이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를 가르쳐주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일천사클리닉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박은수 의사 선생님 가족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일천사클리닉에서 매일 아이들을 진료하고 오후에는 현지인 스텝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먼 거리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찾아오지 못하는 이웃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빈민촌 안의 유일한 병원이자 무료진료소인 다일천사클리닉을 통해 많은 이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855-12-808-861



베트남 VIETNAM

이형식 베트남 다일공동체 협동원장



아이들과 편히 쉬 수 있는 작은 집.

엄마의 소원을 이루어준 청주적십자의 사랑의 집짓기

사람들의 땀을 식혀줄 음료수를 들고 하루도 빠짐없이 길거리에 나가 장사를 해야 하는 부영씨는 오늘도 장사를 쉴 수 없습니다. 홀로 지켜야 하는 아이가 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태양 별을 막아줄 작은 천막조차 없지만 음료수를 판돈으로 아이들을 먹고 공부시킬 수 있으니 그나마 행복합니다. 부영씨의 소원은 아이들과 편히 쉬 수 있는 작은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짓고 아이들이 편히 공부하고 쉴 수 있길 늘 꿈꿔왔습니다.

늘 꿈을 꾸다 보면 이루어지는 날이 오나 봅니다. 먼 나라 한국에 있는 청주적십자에서는 베트남다일공동체와 호치민 적십자를 통해 나베 지역에 살고 있는 부영씨와 남매를 위한 사랑의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청주적십자 팀이 직접 방문하여 예쁘게 페인트 칠을 하고 주변 정리정돈까지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비록 내일 당장 생계를 위해 음료수를 들고 길거리에서 장사를 해야 하지만 아이들과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 할까요. 부영씨와 아이들은 이제 이 집에서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호치민 방송국에서는 부영씨의 사연과 청주적십자에서 지어준 사랑의 집을 영상에 담아 6월 중 4차례에 걸쳐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부영씨의 집 전달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전파를 타고 소식을 접한 어려운 사람들이 또, 이들을 도울 수 있길 바라는 사람들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다른 이의 꿈이 이루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베트남 어린이 날 행사

베트남의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기업에서 후원해 주신 선물들을 모아 대.청.밥 회원들이 선물포장을 하였습니다. 포장하는 것이 쉽고 힘들기는 하였지만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포장하였습니다. 빈흥화 지역의 어린이들을 밥퍼 센터로 초대하고 밥퍼센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빈짠 지역의 어린이들은 현지교회로 초청하여 어린이 날을 축하하며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 날은 정해져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걱정인 빈흥화와 빈짠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날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남의 이야기였지만 이날만큼은 모든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축하와 선물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전해 받은 선물들을 양손에 들고 환하게 웃음지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니 1년 365일이 어린이 날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사이공드림교회 봉사팀이 봉사를 맡아 주셨고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치킨, 음료수를 제공해 주셨으며 VEGAS에서 과자, THANH CONG 티셔츠, 베델비나에서 가방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뜻 깊은 행사를 위해 봉사와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DaJL**

베트남 다일공동체

+84-12-6317-7912



중국 CHINA

이희준 중국 다일공동체 원장



일산 리빙웰 치과 방문 봉사

매년 2회 일산 리빙웰 치과에서는 정기 무료치과 검진과 치료, 교육을 위해 훈춘에 방문하셔서 지역사회 전체를 섬기십니다. 이젠 오랜 세월 함께하며 아이들 이름까지 외우시고 사랑으로 진료하시는 김현철 원장님, 리빙웰 치과 봉사팀, 사랑합니다!



양로원 방문 봉사활동

주말을 맞아 온 가족이 훈춘시 외곽의 양로원에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받은 사랑도 나누고 감사와 섬김을 실천하는 것도 좋은 교육이며 마땅한 도리이기에 이제 정기적으로 양로원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모처럼 아이들을 보니 “신난대!”며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아이들도 “자주 놀러 올게요, 할머니!” 하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요짱의 특별한 생일

다일어린이집의 대형 요짱의 생일... 생일 파티를 하며 요짱이 일어나 눈물을 글썽이며 “오늘은 내가 다일공동체에서 보내는 마지막 생일이다. 동생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해 모두의 마음이 애똥해 졌습니다. 요짱은 소학교 3학년때 다일 어린이집에 들어와 직업고등학교 미용과 마지막 학기 유료 현장 실습 중입니다. 이제 8월이면 어린이집에서 나가 독립을 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

하고 있지만 사실 사회로 나가려 하니 두려움과 아쉬움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영영 이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상 독립하려니 막막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법 상 만 18세 이상은 정부지원도 없습니다. 이제 스스로 해나가야 합니다.

이번 8월에만 4명의 아이가 성장해 독립하게 됩니다. 한화 540,000원 이면 1명의 졸업생이 6개월간 독립해 생활할 최소한의 공간(1달 월세 90,000원 * 6개월)이 마련됩니다. 그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 자립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아이들이 당당히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1달 혹은 6달 주거 지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요짱, 왕하이버, 왕하이타오 등 독립해 사회로 나가는 다일의 가족들을 응원해주세요!

미주 다일공동체에서 온 선물

미국에서 멀리 훈춘까지 아이들을 위해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7명의 아동들의 1년 교육비와 중국 다일공동체 전체 아동들의 이불을 교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불이 너무 오래되어서 계속 바꾸고 싶어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요와 이불, 베게, 얇은 패드까지 모두 25세트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날아온 커다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DaIL**

중국 다일공동체

+86-433-753-8004





다일천사병원 · 다일작은천국

임정순 다일작은천국 원장



사랑의 열매 행복주식 거래소의 전동 휠체어 전달식

오래전 동상에 걸려 두 다리를 잃고 낡은 휠체어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장씨 아저씨를 위해 사랑의 열매 행복주식 거래소에서 전동 휠체어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10년된 낡은 휠체어 대신 새롭게 받은 전동 휠체어가 마치 벤츠 승용차 같이라며 소감을 밝히시다가 그만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는 장씨 아저씨는 '저에겐 4,000만원 보다 더 큰 400만원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감동의 전동 휠체어를 기증해주신 사랑의 열매 행복주식 거래소에 감사드립니다.

최일도 이사장님과 함께한

2015서울사회복지걷기대회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서울사회복지걷기대회'가 2015년 4월 17일 남산에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일 가족들과 작은천국 입소자 어르신들이 함께 한 날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입소자 어르신들은 마치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즐거워하셨습니다. 환한 미소를 가지고 남산을 걸으니 행복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에 남산 부근 광화문 쪽에서 살았습니다. 덕분에 세계절을 느끼며 남산에 자주 오르곤 했지요. 그때는 두 다리도 멀쩡했고 몸도 튼튼하여 산에 오르는 것이 쉬웠습니다. 허나 두 다리가 절단된 후로는 산 근처조차 한번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일작은천국을 통해

서 남산에 갔더니 벚꽃도 활짝 피었고 따스한 봄 기운에 그간 무겁고 차가웠던 제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봄 햇살이 내 마음을 비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행복한 시간들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그동안 다녀보지 못한 곳들을 전동 휠체어를 타고 마음껏 다녀보며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장00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결의에 찬 다짐을 하셨습니다. "봄이 오면 누구나 가고 싶은 진달래, 개나리 꽃들이 가득한 산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녀와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봄 냄새 맡으며 걷는 산책길은 달콤한 꽃 향기와 가슴 설레이는 봄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봄의 풍경을 통해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던 김00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함께한 날!! 이사장님, 직원들, 입소자 어르신들, 또한 사회복지인들과 함께한 사회통합의 날!! 참으로 의미 있고 감동이 있는 남산 걷기 대회였습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고 삼계탕을 드시고

2015년 어버이날은 특별한 행사가 진행된 날이었습니다. 매년 방문해주시던 **취경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손수 다일작은천국 입소자 어르신 한분 한분께 정성스레 가슴에 달아드리고 손 잡아드리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인사말을 건네드렸습니다. "참 예쁘네요." 라고 답하시며 웃으시는데도 눈가에는 촉촉한 이슬이 맺혀있었습니다.

몸도 아프시고, 연세도 많으셔서 이제는 찾아오는 발

걸음이 끊겨버린 입소자 어르신들에게는 이렇게 찾아와 주는 자원봉사 모든 분들이 친자식처럼 느껴지시나 봅니다. 오후에는 우울한 기분을 탈피하고자 다 같이 모여서 재미있는 퀴즈도 풀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악기도 연주하면서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이 장기를 뽐내자, 입소자분들도 질세라 노래도 열창하시고, 자작시도 낭송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신지 여쭙보자 삼계탕을 드시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신 서울다일교회 주영주 권사님께서 이런 특별한 날에 드시고 싶은 것을 드셔야 한다며 후원을 해주셔서, 저녁식사로 입소자들 전원이 삼계탕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입소자들은 맛있다는 엄지손가락을 세우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매일이 오늘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작은천국에서의 매일 매일이 특별한 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소자 어르신분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da:il**

다일 천사병원 작은천국

☎ 02-2213-8004



밥퍼나눔운동본부

이지현 밥퍼나눔운동본부 부분부장

예쁜부부의 예쁜봉사

밥퍼에는 많은 커플들이 봉사를 옵니다. 신혼여행을 밥퍼로 와서 11년간 꾸준히 결혼기념일마다 오는 김종훈, 이명신부부와 자신들의 결혼기념일에 365만원을 매해 모아 오는 선,정혜영 부부, 100일 기념으로 봉

사를 온 대학생 커플, 군산에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서울로 와서 몇일동안 밥퍼 봉사를 하고 간 커플, 오늘 소개하는 전하늘, 한이음 이 부부 역시 이러한 밥퍼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커플입니다. 작년 결혼 1주년 기념일을 뜻 깊게 보내자는 마음이 통하여 밥퍼에 자원봉사를 오게 되었고 봉사를 마치고 내년 결혼기념일에 다시 온다고 약속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유달리 밝은 표정으로 봉사하는 이들 부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결혼 2주년을 맞아 밥퍼에 와서 봉사를 하고 예쁜 봉투에 후원금과 편지를 전달하고 갔습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과 섬김에 감동받고 이 일에 잠시나마 동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은 돈이지만 귀한 사역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2015.5.16 - 전하늘 한이음 부부드림

연예인 부부처럼 하루에 1만원씩의 돈을 모아 365만원을 매해 기부하긴 힘들지만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실천한다며 성금을 모아온 것입니다. 서로에게 결혼기념 선물을 사준다면 각자에게 10만원씩 선물 한 셈치고 20만원을 밥퍼의 나눔에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서로 선물을 한 셈치고 정성으로 준비한 성금에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부부와 커플이 있기에 행복한 밥퍼입니다. 몇 년이 지나 어여쁜 아이들과 함께 오길 소망합니다. **da:il**

밥퍼나눔운동본부

☎ 02-2214-0364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극동대 임상병리학과 |

파릇파릇한 극동대 대학생 봉사자들이 지금까지 6번이나 오셔서 밥상공동체 어르신께 정성껏 진지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활동이라 몸이 힘들었을텐데 웃는 얼굴로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곳에서 좋은 기운을 얻고 한 학기 마무리 잘 하시길 응원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 |

매년마다 동부교육지원청 직원분들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카네이션을 직접 손수 만들어 주십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와주신 동부교육청분들! 정말 최고입니다. 덕분에 어버이날에 밥상공동체 어르신 한 분 한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수 있어 감동이었답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인재개발원 |

동아쏘시오홀딩스 신입 직원분들이 예쁘게 옷을 맞춰 입고는 열심히 어르신들을 위해 진지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신입직원들의 으샤으샤하는 기운에 밥상공동체 어르신들도 힘을 받아 돌아가셨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세요~!



서울시 교육청 |

서울시 교육청 시설횜직렬 공무원분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총 6회에 걸쳐 밥퍼를 찾아주셨습니다. 오신 분들마다 이제라도 올 수 있어 감사하다며 깊은 감동을 받으셨는데요. 다음에는 각자 가족들을 데리고 오시겠다며 돌아가셨답니다. 참 감사합니다.

I . a m . a . h a p p y . v o l u n t e e r



외교부 |

밥퍼의 오랜 친구 외교부 직원들께서 찾아주셨습니다. 그간 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으나 못 와서 참 아쉬웠다고 표현해주신 외교부 가족분들. 역시 베테랑답게 주방에서 각자 맡은 바를 완벽하게 해주셔서 밥퍼 스텝들이 모두 최고라며 연신 칭찬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SC은행 |

작년에 SC은행의 한 부서 몇 분의 직원들께서 직접 몸으로 밥퍼를 경험하시고는 너무너무 좋라며 이번에는 본사 가족이 30명 가까이 함께 오셨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레 진지를 대접하는 모습이 너무 정성스러워서 보는 이들마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밥퍼 현장은 오늘도 감동이 계속됩니다.



쉐보레 미아대리점 |

쉐보레 미아 대리점에서 1년동안 차를 한 대 판매할 때마다 2,000원씩 모아 뜻 깊은 후원금 105만 2,000원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이 후원금으로 밥퍼의 최고령 할아버지 105세 민용식 어르신의 생신잔치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하셔서 기쁘게 받았습니다. 덕분에 할아버지의 생신을 멋지게 축하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킨 |

멋쟁이 뉴스킨 가족분들이 밥퍼 어르신을 섬기러 찾아주셨습니다. 뉴스킨 가족분들은 특히 밥퍼와 지속적으로 함께 나눔과 섬김의 활동을 해오셨는데, 이날은 더욱 열심히 정성스럽게 섬겨주셔서 밥퍼 전체 분위기가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항상 열정으로 함께해주는 뉴스킨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규 후원회원 및 물품 후원 명단

신규후원회원

15.04.09~06.14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주)대한주정판매, (주)두산 정보통신사업부, (주)케이비티제약, (주)토탈이앤씨, (주)프레시플라워, 159기네팔후원금, 도원동교회고등부, 한국오라클나누리, ACHA-RYAG, BBB, BHIMGURUNG, DAHALPREMA, JIN YINGHUA, KAMALKUMA, KHANDAARAT, RAISHAKUNT,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민주, 강숙영, 강승원, 강영희, 강육규, 강해경, 고영일, 고종무, 고현학, 광영호, 광창근, 군산나눔, 권나경, 권동희, 권미정, 권선주, 권순광, 권영훈(박승철헤어스튜디오), 권진영, 권철영(구민서), 길영민, 김갑순, 김경아, 김계수, 김광임, 김국형, 김귀래, 김금실, 김기호, 김도영, 김동호, 김만자, 김명영, 김명진, 김미경, 김미경, 김민건, 김민주, 김범수, 김상운, 김새롬, 김서윤, 김선출, 김설승, 김성덕+안춘선, 김성수, 김성희, 김소영, 김수정, 김순주, 김승희, 김시후, 김양숙, 김영, 김영수, 김영숙, 김영식, 김영이, 김영철ACTS, 김영훈, 김영희, 김요나(나그네), 김용식, 김용호, 김우정, 김유선, 김윤, 김익수, 김인환, 김재수, 김재용, 김정미, 김정미, 김정임, 김정재(저금통), 김정진, 김정화, 김제제일교회, 김종운+이명신, 김준, 김지수, 김지우, 김지환, 김진기, 김태환, 김현진, 김혜아, 김혜정, 김희연, 나다공동체, 나래인터내셔널, 남지은, 남지현, 남진이, 네팔구호금, 네팔근금후원, 네팔예주님의공홀이, 네팔로도우소서, 네팔지친피해돕기, 노윤옥, 노희경, 동정보호정, 동현성도, 두창성결교회, 류창우, 리버벨리아시아, 마합소니, 맹창환(맹이비인후과), 명남, 문광철, 문용호, 문자영, 문진호, 문홍수, 민경진+김민영+민하, 민길순, 박가현, 박경호, 박병권, 박수미, 박수선, 박순생, 박옥자, 박용수네팔구호후원금, 박은림, 박인숙, 박일서, 박정숙, 박정원, 박제현, 박준화, 박지영, 박지환, 박찬미, 박철순, 박혜란+지인, 박혜수, 박혜영, 박홍운, 박희준, 밥상공동체어르신, 밥퍼봉사자, 배범석, 배성은, 배성환, 백시우, 백우빈, 백춘희, 법무법인이산, 변대기, 부티크, 분당우리교회, 서성복, 서승모, 서아맨, 서울메트로기독교선교연합, 서울시설공단, 서한결, 세화여중어머님, 소망교회제7남선교회, 소중학이지역, 속초감리교회청년부(강주경), 손갑식, 손민희, 손석오, 손진호, 송명희, 송솔나무, 송순재, 송은미, 송지원, 송학선, 송현수, 송희경, 순천대토목과, 쉼보레미아대리점, 신도철, 신성운, 신월예데동산, 신인석, 신주영, 신진숙, 신흥고(박용화), 심국중, 심종건, 아가페미션코랄, 안선영 안점숙, 안하은, 안현욱, 양명은, 양영남, 양용석, 양재BBB지체, 양지영, 여수동광교회, 여필중, 연홍구, 영광교회, 영문석정현숙, 예수원, 오경선, 오병이여, 오선화, 오은혜, 오정원, 오준, 오지수, 우간다다일, 우리은행도봉구청, 원주+박희자, 유경숙, 유경숙, 유성모, 유수민, 유수민, 유승철, 유영해, 유인자, 유יה영+나은주, 유현미, 유현민, 윤기철, 윤동현치과, 윤린다, 윤명선, 윤세원, 윤소영, 윤영문, 윤영열, 윤용덕, 은천교회, 이경미, 이경옥, 이광배, 이금배, 이기은, 이기혁, 이기혁+김미나, 이명숙, 이명중, 이민선, 이봉희, 이상형, 이새론(PAGODA종로)저금통, 이서준, 이수정, 이수현, 이수연, 이순길, 이순자, 이승은, 이승철, 이승훈, 이승희, 이신자, 이신자, 이애경, 이영주, 이영춘, 이영하, 이영희, 이예림, 이예찬, 이유리, 이인순, 이인순(저금통), 이장근, 이정란, 이정희, 이주섭, 이준범, 이진수, 이진우, 이창범, 이태우와사모, 이하림, 이한나, 이해익, 이현숙, 이형식, 이혜선, 이혜수, 이혜정, 이호재, 이화선, 인자교회유치부, 인중현봉사최준호, 임동하, 임상훈네팔, 임선희(네팔후원금), 임영선, 임종욱, 임한빈, 임현숙+김미애, 임형수, 장민영, 장용창, 장현주, 장혜영, 장화영, 전소영, 전예빈, 전원찬, 전정임, 전주동부교회연합어전도회, 전현주, 전형진, 정남희, 정도경, 정동민(광주교회), 정범용, 정복희, 정서연, 정서윤, 정성민, 정영애, 정영주, 정용훈, 정인선, 정재건, 정진우, 정효정, 조경희, 조기중, 조기철, 조문경, 조수현, 조아라, 조연민, 조예슬, 조옥선, 조윤선, 조은숙, 조지혜, 조태준, 조한승, 주식회사 도루코리빙, 주영희, 주용수, 주한슬(지유미), 주향수, 지혜경, 진주희, 채규용, 채은수, 최교은, 최다정, 최동천, 최면정, 최미숙, 최민기+최예달, 최성희+울리야나, 최수린, 최수지, 최승권, 최영미, 최영식, 최영훈, 최용주+김영선, 최정옥, 최정윤, 최정현, 최현택, 최희성(아노센C&J), 포카라교회현금진전화, 표미선, 표희정, 필다일지진구호, 하늘누리교회, 하덕규, 하수연, 한결자매회, 한미선, 한서현, 한신영, 한창수, 한재영, 해오른누리, 행복이넘치는교회, 허명은, 허브앤라이프, 허성주, 허승진, 허철, 현숙, 홍규석, 홍금희, 홍성희, 홍원수, 황교안과처, 황의태, 황인수+김정효, 황정화

해외 분원 후원명단은 현지에서 직접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p>밥퍼나눔운동본부 15.04.16~06.15</p>	<p>후원물품 / 김중구(쌀 60kg), 드림재단(빵 7200개), 도루코리빙(가위, 칼, 감자칼, 주방도구, 면도기), 사조해표(김, 참기름, 들기름 등), (주)케이비티제약(벨런스슈퍼엔자임 118set), 문진호(쌀 260kg), 이브자리(이불 10채), 박철규(쌀 20kg), 삼오종합식품(고추장 1통, 간장 1통), 신재윤(쌀 50kg), 허벌라이프(글루코사민, 비타민D 150set), 서울우유(우유 2160개), 호식이두마리치킨(치킨 약 1000인분, 치킨교 환권 20매), 동아쓰시오홀딩스(박카스 10box), 두원 정보통신(쌀 100kg), 조영순(쌀 120kg), 무명(몽של 10박스), 강민수-이초아(고사리 1박스), 훙플러스(쌀 200kg), 장문성(전기밥솥 1개), 박은순(쌀 95kg), 서영태-유지현(쌀 240kg), 강남교육지원청(장화 12켤레), 뷰티플마인드(쌀 240kg), 심찬수(쌀 10kg), 무명(쌀 80kg), 카페베네(커피 800잔)</p>
<p>다일천사병원&작은천국 15.04.16~06.15</p>	<p>후원금 / 주)씨제이프레시웨이, 에스티에스개발(주), 우리은행 미아동지점, 서울다일교회 주영주권사, 한춘미, 이혜선, 하나안경</p> <p>후원물품 / 다일교회 김광숙(츄리닝 20벌), 최일인(수건25개, 양말1개, 성인기저귀팩, 레이스내복2장), 영월교회 조옥희(고추가루10근), 서미정(수박2통), 김철민(고기만두2box), 최가람(유기농 상추 1kg),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약품364,000)</p>
<p>캄보디아다일공동체 15.04.16~06.15</p>	<p>후원금 / SBS(미국 THE STONY BROOK SCHOOL), 기쁨이있는교회, 김광연, 김수진, 김라온, 김설규, 김근정, 김은비, 김은호, 더불어꿈, 데오스학교, 말씀공동체, 밀양시민교회, 박길상, 박선희(도서출판 해와 나무), 부산 부곡초등학교 아리솔, 성남시, 송지희, 안산 사랑의 부부 합창단, 안재윤, 양광교회, 위덕대항공관광학과, 윤진기, 울리아(더불어꿈), 이매동주민자치회, 이용희(국기원), 이원호, 정성진, 조지훈(기쁨이있는교회), 주완철, 카도, 현대자동차울산공장 소재사업부장 김학중 이사 외 소재지원팀, 현대자동차울산공장,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황채순(임마누엘교회)</p> <p>후원물품 / 그린투어 여행팀 (학용품, 의류 외), 기쁨이있는교회 (의류, 학용품 외), 김정림 (학용품, 의류), 데오스학교/성남시 (공구, 의류 외), 위덕대학교 항공관광학과 (의류, 간식 외), 일산 사랑의교회/나돌섬 선교회 (선물세트, 의류 외), 임마누엘교회 (간식, 의류 외), 자유미 (도서, 의류 외), 하나투어 여행팀 (라면), 하나투어 여행팀 (학용품, 라면 외), 하나투어 여행팀 (학용품, 의류 외), 현대자동차울산공장/현대자동차노동조합/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도서, 학용품 외)</p>
<p>중국다일공동체 15.04.16~06.15</p>	<p>후원금 / 김성재(Obey & Praise), 대한적십자 속초지구, 민경식(북경), 미국 산호세 뉴비전 교회, 하복성 장학지원팀, 훈춘시 부련회</p> <p>후원물품 / 영광제빵(빵), 권윤경(월 4회 간식지원), 포스코 현대 국제 물류 유탄공사(아동티셔츠, 완구, 전체 아동 외식비 지원), 훈춘 한국인 어머니모임(빵, 우유 외), 훈춘 피아노(과일), 인수보험공사(쌀, 밀가루 외), 사랑유치원(과자, 옷, 가방)</p>
<p>탄자니아다일공동체 15.04.16~06.15</p>	<p>후원물품 / 미 대사관(의류, 학용품, 도서)</p>
<p>베트남다일공동체 15.04.13~06.15</p>	<p>후원금 / A PLUS, CAS베트남총판, Daewoo International, LOTTERIA, MAX VINA, NAHAL, ORION, POSCO, VIETNAM, THANH CING, VEGAS, 고갑순님(닥터카 대표), 기업은행, 김경중 원장님(U.E.C여학원), 대유비나,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흥덕지구협의회, 보민건설, 사이공드림교회,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아리랑화학, 아산상선, 오경숙님, 이정자 권사님(자전거 지원금), 참조은광성교회, 청주적십자회, 호치민중앙교회</p> <p>후원물품 / A PLUS(인형 68개), LOTTERIA(펄스 192개, 햄버거180개, 치킨180조각), POSCO ICT(쌀 40kg, 바나나 80개), sheen's vina(옷 150벌), Sweet Factory(빵 1,360개), THANH CONG(옷 150벌, 보험증 30장, 바나나 240개), VEGAS(우유 6box, 라면 9box), 대유비나(옷 150벌), 베가스(과자 150개, 공책 750권, 볼펜 750개), 베델(가방 200개), 사이공드림교회(라면 9box, 우유 6box), 한인연합회(과자, 음료 50set)</p>

후원안내



문의 | TEL. 02-2212-8004 FAX. 02-2243-8005

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을 비롯하여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1:1 해외아동결연(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통하여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해외 아동과 결연을 하시면 결연 아동의 소개서와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생쌀이 운동 (Rice Pot Relay)	무의탁노인과 독거노인, 북한전역과 어려운 지역, 해외 빈민촌을 돕기위한 캠페인입니다.(36,500원, 365,000원, 3,650,000원)	
전세계 밥퍼 1일 배식비(700만원)	노숙인 및 무의탁 어르신들께 하루 진지를 대접하는 후원입니다.	
다일천사후원	다일 공동체의 의료지원사업(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해외 보건의료사업, BCP 등)을 위한 후원입니다. 1구좌 100만원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예금주 : 다일복지재단)	나눔 계좌	외환은행 131-22-00800-7
	캐나다 후원계좌(TD Canada Trust)	국민은행 010-01-0619-487
	만원의 행복	외환은행 131-22-00892-9
		하나은행 158-910001-02004
	생쌀이 운동(Rice Pot Relay)	국민은행 467737-01-002291 (예금주 : 다일복지재단 생쌀이운동)
	밥퍼나눔운동본부	국민은행 010901-04-037581
	설곡산다일공동체	국민은행 010901-04-064419
	다일천사병원	국민은행 010-01-0975-871
		하나은행 158-910002-46204
		외환은행 131-22-01134-2
	다일작은천국	국민은행 467701-01-224504
	다일평화의 마을	국민은행 010-01-0619-487
	캄보디아씨엠립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65
	캄보디아프놈펜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78
	베트남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94
	필리핀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81
	중국 다일공동체	기업은행 017-033086-01-021
	네팔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5744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233964
	우간다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231436
	미주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053115

미주 후원계좌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계좌번호 : 334040926776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한국에서 송금할 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미국에서 송금할 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미주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원하시는 분은 미주다일공동체 구좌로 송금하시거나 미주다일공동체 홈페이지(dailusa.org)를 통하여 회원 가입 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후원계좌

TD Canada Trust Bank
 Account No : 5222930
 Transit No : 13542
 Inst. No : 004

Account Name : Dail Community of Canada

Pay to. Dail Community of Canada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국내 · 해외분원연락처



다일복지재단

130-8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2-8004

밥퍼나눔운동본부

130-80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8
Tel. 02-2214-0365

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130-8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3-8004

설곡산다일공동체

477-852 경기 가평군 설악면 봉미산안길 330
Tel. 031-585-2004

다일평화의 마을

477-852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Tel. 031-568-5004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본원

St N°63 Toul Kork Pey Phu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Tel. +855-12-808-861

프놈펜 지부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 Penh City, CAMBODIA
Tel. +855-12-808-861

중국 다일공동체

133300 吉林省 琿春市 新安街 多一少年之家
Tel. +86-433-753-8004

네팔 다일공동체

카트만두 본원

Manohora 16 Madhayapur thimi city Bhakthpur, NEPAL
Post Box No. 25655 Kathmandu, NEPAL
Tel. +977-98494-58330

포카라 지부

17 Damside Kaski, Pokhara Sub Municipality, Nepal
Tel. +977-98607-76685

우간다 다일공동체

PO Box 85 Kisubi, UGANDA
Tel. +256-77107-2382

필리핀 다일공동체

BLK 8 Lot 3 Calliandra st. I Greenwoods, Paliparan#1
Dasmariñas, Cavite 4114, PHILIPPINES
Tel. +63-927-560-7346 / 070-8220-327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White House No 10

Dar Villa Plot No. 2, Block D, Low Density Msasani Village,
Dar es Salaam, Tanzania
Tel. +255-786-740-003

베트남 다일공동체

R4-51 Hung Gia2, PMH, Tan Phong Ward, District7,
HCMC, VIETNAM
Tel. +84-12-6317-7912 / 070-8220-6160

미주 다일공동체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USA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44
www.dailusa.org

캐나다 다일공동체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Tel. +416-824-4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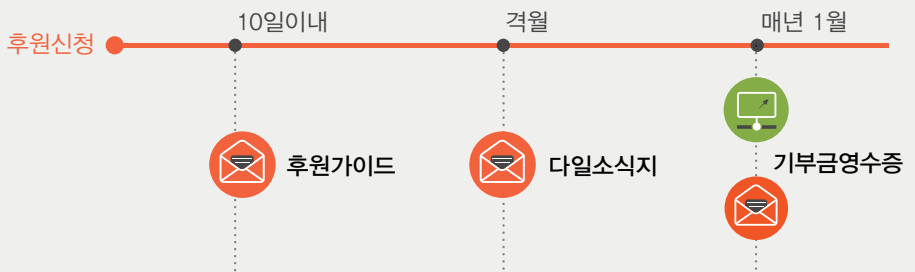
나눔이 희망을 꽃피웁니다

여러분이 건네는 진심어린 마음은 어린이들에게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좀 더 간편하게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나눔회원 서비스



다일공동체 후원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만원의행복 월 1만원 _____ 구좌	<input type="checkbox"/> 일대일아동결연 월 3만원 _____ 명	<input type="checkbox"/> 생쌀이운동 36,500원 _____ 구좌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월 _____ 원		

일시후원

<input type="checkbox"/> 생쌀이운동(<input type="checkbox"/> 36,500원 <input type="checkbox"/> 365,000원 <input type="checkbox"/> 3,650,000원)
<input type="checkbox"/> 전세계 밥퍼 1일 배식비(700만원) <input type="checkbox"/> 밥퍼 1일 배식비(280만원)
<input type="checkbox"/> 다일천사후원(1구좌 100만원) _____ 구좌 <input type="checkbox"/> 다일평생천사후원(1구좌 1,004만원) _____ 구좌
<input type="checkbox"/> 다일아너스클럽회원(1구좌 1억원) <input type="checkbox"/> 유산 10% 기부회원

후원회원 정보

이름 _____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 여)

연락처 _____

이메일 _____ SMS수신동의

주소 _____

우편물 발송 우편물 미발송

CMS 자동이체 동의서

출금은행 _____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이체 희망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예금주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기부금 영수증

주민등록번호 _____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기재해주시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

CMS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다일복지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로 후원금은 소득세 법 34조에 따라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 위 내용은 후원자 정보 등록 및 연말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PRAY FOR NEPAL

일러스트 : mini (송민희) miniya10@hanmail.net

보내시는 분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발송유효기간
2014.02.14 ~ 2016.02.13

동대문우체국승인
제40242호

DAIL 다일공동체
DAIL community

130-8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다일복지재단 6층
후원안내 | 02.2212.8004 팩스 | 02.2243.8005
홈페이지 | www.dail.org

다일영성생활수련

힐링 여행, 다일영성생활수련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울증, 중독, 가출, 자살, 가정불화 등으로 고통받는
청소년, 부부, CEO, 교수, 목사, 정치인, 연예인 등
각 분야의 사람들과 가정을 치유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서울다일교회 담임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류승범(영화배우)

“다일 수련을 통해 천국의 잔치를 맛보았습니다.
치유와 회복, 자유와 기쁨을 새롭게 체험한
저에게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일정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167기 8월 10일 ~ 14일(4박 5일)

168기 9월 7일 ~ 11일(4박 5일)

169기 10월 12일 ~ 16일(4박 5일)

2단계 작은예수 살아가기

47기 8월 17일 ~ 21일(4박 5일)

3단계 예수님과 동행하기

19기 8월 3일 ~ 8일(5박 6일)

등록안내

-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으로 마감하며, 수련비 입금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 수련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전 화 031 585 2004, 010 6375 8004
홈페이지 www.dail.org

입금계좌

농협 355-0022-4654-93 (다일공동체)

후원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용카드와 CMS로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www.dail.org



전화로 신청하기

다일복지재단 전화 02.2212.8004로
후원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2.2212.8004



우편으로 신청하기

소식지 안쪽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130-8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카카오톡으로 신청하기

작성하신 후원신청서의 사진을 다일복지재단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일복지재단과 카카오톡 친구되기
1.ID로 등록: dailwf
2.QR코드로 등록



모든 후원금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